

# 전남도 김 생산량 전국 74%... 수출은 17% 불과

## 가공시설 경기·충청에 집중 원료상태로 타 지역 넘어가 자체 수출 시스템 구축 시급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남 김의 대부분이 원료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 가공·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남 김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낮고 가공·유통·수출 관련 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생산된 양식 김은 1만9244t(생산액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은 3%, 생산액은 12% 각각 상승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흥 6604t(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진도 5257t(81억원), 해남 3416t(40억원), 완도 1170t(1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11월 수온 정체로 작황이 부진했으나 12월에 수온 하강으로 성장이 호전돼 내년 1월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남에서 생산된 김은 모두 30만7000t(2420억원)으로, 전국 41만6000t(3259억원)의

74%를 차지했다. 2016년산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남도의 김 수출액은 10월 말 현재 4414만7000달러로, 전국 수출액 2억4900만 달러의 17.7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김이 충청도와 경기도의 공장에서 가공된 뒤 미국, 일본, 중국 등 107개국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김 수출액도 지난 2013년 4400만 달러, 2014년 5600만 달러, 2015년 6000만 달러(예상치)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국 수출액에 비교해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 김 수출액은 올 연말까지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전년 대비 9.2%가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김을 자체 가공·유통·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충청도와 경기도에 비해 가공시설이 크게 미흡한 것이 낮은 수출액의 원인”이라며 “생산지에서 가공·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제조업, 유통업 등의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민대책위 구성

### 시민단체, 여론수렴 시에 건의 지상 선호 ... 시의회와 견해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22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 최종안을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토론회를 열어 트램을 지지한 가운데 광주 경실련, 시민단체협의회 등도 대책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설 반대 의견도 있지만 시민단체는 대체로 지상 건설 방식을 선호해 지하 저심도 원안 고수를 지지한 시의회와 견해차가 예상된다. 시민 대책위는 내년 초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건설방식을 발표하기로 한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가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별도의 시민 공청회를 열어 최종 방식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올해 안에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정현 시장은 이와 관련 “연말 내 결정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지만 논의가 뜨겁고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면 해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23층 롯데월드타워 상량식 22일 국내 최고(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123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상량식 행사에서 주요인사들의 서명이 적힌 H빔 대들보가 123층 지붕에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 벽진동 야산서... 시, 방제 총력

광주에서 소나무 7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달 초 서구 벽진동 야산 0.2ha 방제 안에 있는 소나무류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산림과학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는 발생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금호1·2동, 서창동, 유덕동, 치평동 지역 3149ha의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또 2013년 11월 광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광산구 신흥동 주변 2570ha를 소나무·잣나무·해송 등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21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광주 서구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인접 시·군 관계자 40여명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제대책 회의가 열렸다. 시는 재선충병 매개충을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감염목, 의심목을 벌채해 파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정밀예찰과 예방 나무주사를 확대하는 등 총력 방제에 나설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은 길이 1mm 안팎의 실처럼 생긴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소나무의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막혀 고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매개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보통 4~5월에 우화한다”며 “잠복시기인 지금 감염목이나 의심목을 전량 방제해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공무원 3명중 1명 “차별 당해도 참는다”

### 전남대 인권법센터 319명 설문

광주 공무원 3명 중 1명가량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당해도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선사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22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 조직원 319명을 상대로 한 인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자 가장 많

은 105명(32.9%)이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103명(32.3%)은 ‘노조에 도움 요청’, 73명(22.9%)은 ‘동료에게 도움 요청’을 한다고 답했다. 차별을 참는 이유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46.7%),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25.7%), ‘적절한 조치 미흡’(25.7%) 등의 답변 순이었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참는 비율이 높아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유형이 공무원

조직에도 나타났다고 차 센터장은 분석했다.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안된다’, 또는 ‘전혀 안된다’는 의견이 46.1%였으며 ‘보통이다’는 42.3%였다. 차별 사유는 직급·직렬 129명(40.4%), 성별 60명(18.8%), 나이 41명(12.9%) 등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가해자는 상관(40.1%), 민원인(24.5%), 의원 또는 보좌관(10.7%) 등이 주로 지목됐다. 이밖에 정부의 압박으로 노조활동이 방

해 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상급단체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가입 시에는 전 공노를 선호했다고 차 센터장은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개정안, 성과미흡 퇴출제, 임금피크제는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차 센터장은 “공무원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 각 분야 인권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차 센터장 외에 광주·전남 민변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토론과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2382개 마을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 인터넷 강의·전자상거래 활용

전남지역 농어촌 마을 2000여 곳에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면서 학생들의 인터넷 강의는 물론 컴퓨터를 활용한 의료진과 소통, 전자 상거래 등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82억원의 예산을 투입, 2382개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했다. 인터넷 속도가 기존 10Mbps에서 1Gbps급으로 빨라지면서 농어촌지역 학

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IPTV(인터넷방송을 활용한 방송·통신서비스) 시청, 민박 예약과 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해졌다. 또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향후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2017년까지 추가로 848개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 복지 정보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에게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레이저 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감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 새생명탄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